

# “예·적금으로 재테크” 7.2% 적금, 판매 6시간만에 ‘완판’

### 금융권, 자금 유치 경쟁 심화...광주·전남 농협 4%대 진입 광주은행 지난달 예·적금 잔액 12조495억...15.4% 늘어

광주지역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째 일하고 있는 김모(28)씨는 이직을 계기로 자산관리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광주축산농협이 25일 내놓은 연 7.2% 고금리(1년 만기) 특판 적금을 들기 위해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점포 앞에서 기다렸다.

오전 9시 영업 시작과 함께 27번째 창구 대기표를 받은 김씨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들 수 있는 적금 2개를 들었다. 김씨가 1년 동안 적금을 들어 손에 쥐는 이자는 93만6000원(세후 79만1856원)이다. 광주축협이 200억원 한도(1인당 200만원)로 내놓은 특판 적금은 이날 판매 시작 6시간 만에 동이났다.

김씨는 “주식 열풍이 불었던 최근까지 2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이 ‘마이너스’ 29%까지 내려갔다”며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리가 높은 적금을 들어 재테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10년 만에 국내 기준금리가 연 3%대에 진입하면서 자금을 유치하려는 금융권의 예·적금 금리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2금융권이 내놓은 고금리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영업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은행권 최고 예금금리가 연 5% 안팎에 다른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농협들의 예·적금 평균 금리도 이날 4%대에 들었다.

25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남 14개 지역농협의 예·적금 잔액은 15조2201억원으로, 지난 연말(14조228억원)보다 8.5%(1조1973억원) 증가했다.

지역농협들의 예금 잔액은 12조7614억원에서 13조9618억원으로 10개월 새 9.4%(1조2004억원) 늘었고, 적금은 1조2614억원에서 1조2583억원으로 0.2%(31억원) 감소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2금융권에서 치열한 예·적금 금리 경쟁에는 최근 농·축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도 가세했다.

이달 전남 14개 농협의 평균 예·적금 금리(1년 만기)는 4%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21일 기준 전남 조합들의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4.13%로, 지난 연말(1.48%)의 3배 수준으로 뛰었다. 적금 금리는 1.47%에서 4.01%로 급격하게 올랐다.

광주지역 14개 농협의 이달 24일 기준 수신금리도 4%대(예금 4.2%·적금 4.5%)로 올랐다. 같은 기간 광주 14개 조합의 수신 잔액은 예금 4조7174억원·적금 3555억원 등 5조원을 넘겼다.

수신 금리가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뛴 전남 19개 지역수협의 예·적금 평잔(하루 평균 잔액)도 전년보다 ‘두 자릿수’ 증가했다.

전남 19개 수협의 예·적금 평잔은 지난 9월 기준 6조95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1382억원)보다 13.2%(8125억원) 증가했다.

지역수협들의 예금 평잔은 1조2005억원에서 1조8659억원으로, 1년 새 9.5%(-1140억원) 감소한 반면, 적금 평잔은 4조9377억원에서 5조8642억원으로 18.8%(9265억원) 늘었다.

지난달 전남 19개 수협의 평균 예금 금리는 3.42%로, 지난해(1.71%)보다 2배 뛰었다. 적금



광주축산농협이 연 7.2% 금리 적금(1년 만기) 판매를 시작한 25일 광산구 신촌동 본점에서 문을 열기 전부터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0억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인 이 적금은 판매 시작 6시간 만에 ‘완판’됐다.

금리는 지난해 1.90%에서 올 9월 3.45%로 오르며 4%대를 눈앞에 뒀다.

1금융권인 광주은행도 고금리 상품에 지역민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날 주요 예·적금 수신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추첨 방식으로 연 최고 13.7% 이자를 주는 ‘행운적금’(정액식)은 출시 두 달도 되기 전에 가입액 57억원을 넘겼고, 여행할수록 금리를 더 주는 남도투어적금(최고 5.3%)은 3개월여 만에 가입액 50

억원을 앞두고 있다.

광주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예·적금 잔액은 12조 4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0조4425억원)보다 15.4%(1조6070억원) 늘었다.

중앙은행의 인축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경쟁에 기준금리가 또 오르면 ‘출혈’ 수준의 예·적금 특판 출시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자금 사정이 급해진 2금융권 등이 고금리 상품을 내놓아 현금을 쌓아두

려 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수신금리가 높아져 정기예금 잔액이 늘어나면 자금 조달 비용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도 높아진다. 이 지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는 농촌 농협들은 자금 이탈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전자 모델이 25일 ‘비스포크 제트 봇 AI 콜라보 서바이벌’(10월27일~11월20일)에서 공개할 ‘보로로’ 등 캐릭터 로봇청소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캐릭터 실은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AI’ 눈길

### 삼성전자, 젊은층 겨냥 이색 마케팅...게임·만화 캐릭터 적용

삼성전자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AI’에 적용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대거 공개하는 ‘비스포크 제트 봇 AI 콜라보 서바이벌’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스포크 제트 봇 AI 콜라보 서바이벌은 가상 체험 공간인 ‘제트랜드’에서 소비자들의 직접 참여와 함께 이뤄진다.

삼성전자는 사용자의 일상을 함께 하는 친구 같은 로봇청소기의 특성을 부각하고자 그동안 ‘잔망

루피’, ‘미니언즈’ 등 캐릭터를 적용한 특별 패키지를 출시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영유아나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를 겨냥해 ‘보로로’와 ‘꼬마버스 타요와 친구들’, ‘캐치! 티니핑’ 등이 참여한다.

또 벅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 EBS 웹에능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빙철조교’ 등 MZ세대에 인기 있는 캐릭터도 참여한다.

각 캐릭터들은 제트랜드에서 제트 봇 AI의 얼굴이 되기 위한 포부를 밝히는 등 서바이벌 형식의 이

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은 가장 갖고 싶은 나만의 제트 봇 AI를 응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응원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 중 10명을 선정해 비스포크 제트 봇 AI 제품과 자신이 직접 선택한 캐릭터가 담긴 한정판 상단커버를 증정할 예정이다.

비스포크 제트 봇 AI 본품과 이벤트에 참여한 9종의 캐릭터가 적용된 상단 커버로 구성되는 특별 패키지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Wadiz)’를 통해 27일부터 한정 판매로 진행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농협 광주본부, 대출 연체 대비책 논의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2년 채권관리 업무협의회’를 열고 25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광주지역 농협 채권관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금리 상승 여파로 자칫 벌어질 수 있는 대출 연체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이들은 연체 현황을 분석하고 감축 계획을 세워

건전 여신 문화를 정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달 19일 기준 광주지역 14개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금 평균 연체비율은 0.53%로 전국 최저치를 보인다.

고성신 광주본부장은 “단기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주시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건전성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신보, 무안군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마무리

### 온라인 마케팅·세무 교육 등 사업 전반 해결책 제시

전남신보보증재단은 무안군과 협약을 맺고 올해 4월부터 진행한 ‘2022년 무안군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신보는 무안군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및 실습·세무·노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 진단·홍보마케팅·영상 제작 등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사업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고객 유입, 제품 판매 등 온라인 마케팅을 주요 컨설팅 과제로 선정해 비대면 환경에서 소상공인 경영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전남신보의 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매출은 이후 약 2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남신보는 업체별로 전담매니저를 배치해 업체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 참여 소상공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이 무안군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전, 지역 학생들과 사이버 공격 방어훈련

### 오늘까지 나주 분사

한국전력이 지역 대학, 고등학교 학생들과 사이버 공격을 막는 훈련을 나주 분사에서 진행했다.

한전은 26일까지 나주 분사에서 국영원 광주지부와 ‘2회 전력 분야 실전형 사이버 공격 방어훈련’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훈련에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이 동참했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 광주대, 목포대, 동신대, 한국에너지공과대, 순천전자고등학교 등 지역 대학생·고등학생도 참여했다.

‘사이버 공격 방어훈련’은 기존 문제 풀이 방식과 달리 가상의 환경에서 실제와 유사하게 공격과 방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해킹 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보안훈련

은 공기업에서 시행되는 유일한 실전형 사이버 훈련이라 의미가 있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올해는 이 행사를 전력 분야 특화 사이버 훈련으로 발전시키고자 ‘일렉콘’이라 새롭게 이름을 정했다.

지난해 9개 기관, 13개 팀이 방어팀으로 참가했으며 올해는 20개 기관 24개 팀으로 참여기관이 대폭 늘었다. 올해는 정보보안 관련 6개 특성 화고가 신규 참여했다.

한편 한전은 국영원 지부와 광주시, 한국정보보호학회 호남지부 등과 협력해 지난달 말 ‘제3회 호남 사이버보안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올해 2회째 시행되는 실전형 사이버 공격 방어훈련이 참가하는 모든 기관 참가자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국가정보원과의 정보보안 협력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 전력산업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고자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국고채 ‘발행 축소’ 발언에 금리 일제히 하락

### 10년물 4.346%로 내리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35.07(-1.09)
↑ 코스닥	688.85(+0.35)
↓ 금리(국고채 3년)	4.221(-0.084)
↓ 환율(USD)	1433.10(-6.60)

정부가 연내 국고채 발행량을 큰 폭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25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금리 하락은 채권가격 상승을 뜻한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8.4bp(1bp=0.01%포인트) 내린 연 4.221%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4.346%로 15.7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0.8bp, 7.8bp 하락한 연 4.383%, 연 4.246%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4.295%로 17.8bp 내렸다. 30년물

과 50년물은 각각 15.2bp, 15.2bp 떨어진 연 4.183%, 연 4.129%를 기록했다.

올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줄이겠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강세로 돌아섰다.

주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주최한 한 콘퍼런스에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국고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올해 남은 기간 중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된 국고채 발행량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177조3000억원이며 지난달까지 누적된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2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1.3%를 채운 상태다.

/연합뉴스